생일 촛불을 끄면 복지가 켜진다

(여호수아 19:1~51)

49.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50.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51.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일 촛불을 끄면 복지가 켜진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생일 촛불을 끄면 복지가 켜진다.'
여러분은 왜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나이 수만큼 꽂아서 켜고 단숨에 불어서 끄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12세기에 독일 농민들 집에서 아이들의 생일잔치를 열어주는 풍습에서 유래 되었다고 합니다. 생일잔치를 독일어로 "킨더페스테"라고 하는데 생일인 아이가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에 촛불을 켜두고 저녁 먹을 때가 되어서 촛불을 끌 때에 소원을 빌면서 촛불을 한 숨에 불어서 끄게 됩니다. 촛불의 숫자를 아이의 나이보다 하나 더 켜는데 이 촛불의 이름을 "생명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등불'을 한 숨에 끄는 것이 왠지 불길하지 않습니까? 이름이나 그렇게 붙이지 말든지, 굳이 이름을 생명의 등불로 붙여서 자기 입으로 끄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세기면 아직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기 전입니다. 전통적으로 가톨릭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 "성명 축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세례명에 쓰이는 성인들을 기리는 축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인들을 기리는 날은 그들이 탄생한 날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지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떠나간 날을 축하합니다. 이유는 기독교 초기에 끊임없는 박해에 시달리는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던 사람들에게는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날이, 고통 많은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복락의 하늘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축하받아 마땅한 날이 장례날이었고 그날을 진정한 생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성명 축일' 절기를 지키는 풍습으로부터 생일날에 촛불을 켜서 한 숨에 끄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생일의 참된 기쁨은 죽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이 기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날이 참 생일이고, 이 참 생일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생일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는 날이 없다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렇게 보았지만 그것이 진리였고 세상의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앞으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생일은 이 세상에서 죽어서 하나님아버지가 계시는 저 천국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데 '날마다 천국에서 태어난다는 말이고, 날마다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산다는 것이고, 날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나를 죽이기 위해 생명의 촛불을 끄면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란 우리 마음에 살아야 될 이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에 대한 관계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느냐는 것입니다. '생명의 등불을 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살아갈 이유를 찾는 생명을 끄는 것이고 천국과의 관계에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태어난 생일날에 세상에 대한 관계에서 삶의 이유를 찾는 생명의 등불을 꺼버리고, 하늘에 대한 관계에서만 살아갈 이유를 찾는 생명의 불을 켜는 것이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켜고 끄는 풍습의 배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 드린 대로 베냐민 지파까지 땅 분배가 끝난 상황에서 나머지 여섯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로서는 발음하기도 어렵고 관심도 생기지 않는 수많은 지명들을 지루하게 나열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지루한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지의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아버지의 사랑과 집요하신 계획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리 할 정도로 거명하셨던 것입니다. 선민 중에서 어느 한 지파,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복지에서 살게 하고픈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 선민인 사람들은 주시는 복지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저계급론이 유행하는데 이것을 초월한 계층이 선민들인 것입니다. 수저계급론에는 있지도 않은 천(天) 수저인 하늘의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천(天) 수저를 물고 태어난 선민들의 삶이, 천(天) 수저를 문 사람답게 이 땅에서 복지가 되게 하시려는 집요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꼭 복지를 살게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집요한 계획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여섯 지파는 구약의 성경에서 빛나는 이름들이 아닙니다. 꼭 우리 대부분과 같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유다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베냐민 지파라든지 유명한 지파들에 못지않은 강렬한 열망을 가지시고 복되게

살게 해주시려는 집요하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지혜로우면 알 수 있는데 경제성장에서 단군이래로 가장 잘 사는 번영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저성장이라는 암초에 부딪히기 직전입니다. 아니 이미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다고도 합니다. 의학과 유전자 연구가 발전하면서 무병장수가 가능해졌지만, 그 그늘에서 고령화 시대와 저출산 사회가 되어서 2030~2050년이 되면 노인이 인구의 절반을 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같은 책이 온 세상을 뒤덮었는데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의 수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현저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더 많아집니다. 온갖 경제학자들이 노벨상을 타도 경제문제는 계속해서 어려워집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눈을 떠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는 이 세상에서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나머지 인생이 복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집요하신 사랑의 마음에 걸어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여서 복지를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모든 지파의 땅이 분배된 다음에 여호수아 한 개인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을 통해서 분배가 끝이 나는데 요게 참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된 요단강 서편의 땅 분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앞서 본 14장의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할당하면서부터 땅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분배를 앞뒤 괄호로 묶고 있는데, 갈렙의 땅 분배로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땅 분배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집요하신 마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여서 복지가 켜지게 하려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여준 신앙에서 스위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복지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집요해도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것을 스위치처럼 켜야만 주어집니다. 그것을 갈렙과 여호수아에게서 발견하지 못하면 복지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집요하심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장단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갈렙과 여호수아가 짝을 이루며 거명되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사건 때부터입니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열두 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산지에 살고 있었던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열 명의 정탐꾼들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갈라집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집요하시게 한 사람도 복지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38년 동안 끌고 다니시며 다 죽이십니다.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복지를 주시려는 집요한 마음을, 복지를 안 주시려는 집요한 마음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까? 여기에 복지를 켜는 열쇠가 있습니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을 때의 마음의 반응을 분해해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으로 아낙 자손 거인을 보았지만 마음은 그들에게 등을 돌립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눈으로 보는 아낙 자손 거인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느끼는 가운데, 자기 눈으로 보는 아낙 자손 거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느낌이 전달되고, 아낙 자손 거인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낙 자손 거인의 느낌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계획을 받아들여서 다시 아낙 자손 거인을 보자 그들이 나의 밥이 됩니다. 초점은 내 마음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죽는 것입니다. 마음이 관계하는 상태가 생명인데 세상에 대해 관계하려는 마음에서 죽어서 마음의 반응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열 명은 아낙 자손 거인을 눈으로 보고 마음이 반응해서 아낙 자손 거인에 가서 붙어버립니다. 아낙 자손 거인의 입장에서 나를 보니 내가 메뚜기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에 마음이 반응하며 세상과의 관계에서 생명의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생명의 불은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이 부각되게 됩니다.

이렇게 땅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생명의 불을 끄지 않은 자들, 하늘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생명의 불을 켜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시다가 복지에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명은 집요하게 붙들어 주셔서 기필코 복지를 받게 해주시는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러한 논지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갈렙이 할당 받기를 요구해서 자기 땅으로 만든 헤브론 산지는,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처음으로 소유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 땅은 아내 사라가 죽어서 묻힌 무덤이었고 아브라함 자신이 죽어서 묻힐 무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가진 땅이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아직 죽지 않은 상태이지만 죽어야 될 무덤을 첫 번째 소유지로 삼았다는 것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였던 마음가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연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지가 켜집니까? 이 세상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이 죽어야 합니다. 생명은 우리 마음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대한 관계에서 마음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생명입니다. 반대로 하늘에 대한 관계에서 마음이 살아있는 것도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대한 관계에서 마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 마음이 꺼져야 합니다.

내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삶의 자리와 터전 어디에서든지 내

삶을 허락하고 계신데, 복지를 허락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집요함이 있으십니다. 그 집요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준비되어진 복지를 켜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에 대해 마음이 살아있는 생명의 등불을 끄는 것입니다.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끄듯이 눈에 어떤 것이 보이더라도 그것에 마음이 반응하려는 상태를 꺼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 사는 생명의 등불이 꺼지는 날을 진정한 생일로 보았던 것처럼, 하늘나라로 태어나고 하늘에 대한 관계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 것입니다.
2016년이 시작되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되게 살게 하시려는 집요함을 가지시고 2016년을 준비하고 계시므로 이 복지를 켜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복지에서 첫 번째 땅으로 무덤을 샀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며 그들에 대해 마음이 죽고 하나님을 향해 등불을 켭니다. 2016년 동안 내 눈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환경, 경제 상황, 대한민국, 국제관계 등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끄듯이 내 마음이 그것에 반응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 붙잡고 꺼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끄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을 느끼는 상태로 이 세상을 산다면 복지가 켜집니다.
1년 365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껐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세상을 향해 있는 생명의 촛불을 끄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집요함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복지를 다 켜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관데 그러한 특심으로 집요하심을 가지고 복지를 준비해주십니까? 세상을 향해 있는 나의 생명의 촛불을 끄고 온전히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지를 다 켜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 한 순간도 예외 없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